



“불교공부 이보다 더 좋을순 없다”

사이버불교교양대학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울릉도에 사는 최수영 씨는 평소 불교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울릉도에는 사찰이 그리 많지 않고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 불교에 대한 배움의 열망을 버려야 했다. 그러나 얼마전 최수영 씨는 이 같은 고민을 해결했다. 우연히 인터넷 가상공간을 서핑하다가 대구 관음사에서 개설한 사이버불교대학에서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1년 과정의 불교교양대학을 이수하며 기초교리를 배우고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박희숙 씨는 지난해 불교 교양대학에 등록해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워보겠다고 서원했다. 바쁜 회사업무로 인해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지만 사이버불교교양대학인 붓다스쿨에 등록해 현재 4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추운 겨울, 직장이나 집안일을 마치고 인 손을 호호 불며 오프라인 불교교양대학을 방문해 수업을 듣기란 쉽지 않다. 또한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10시를 훌쩍 넘기기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특히 일상의 피곤함을 풀어야 하는 주말에는 더더욱 외출하기가 힘들다. 불교는 배우고 싶고, 현실 상황은 직접 교양대학에 나오기 힘들다면 사이버불교교양대학에 노크를 하면 어떨까? 집에서 편안하게 간식을 먹으면서 당대 최고의 강사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불교교양대학은 부여받은 개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출석, 강의 시청 정도 등 모든 사항들이 자동적으로 체크되는 시스템으로 학사 일정이 진행된다. 그러나 특정 공간에 모여 교수의 강의를 받는 일반적인 수업과 달리 가정이나 직장, 기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기에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사이버 불교교양대학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 곳은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1992년 대구 관음사에서 시작한 영남불교대학은 10여년의 불교 교양대학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98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다양한 불교 강의를 음성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1년 과정으로 예불, 받아심경, 천수경, 금강경 등의 기초반과 서장, 치론, 법화경, 인도불교사, 화엄경, 포교사 문제풀이, 근본불교를 배우는 고급반을 운영하고 있다.

대원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불교대학원의 사이버 불교교양대학인 붓다스쿨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2년제 오프라인 대원불교대학의 강의를 캠코더로 촬영해 다음날 사이버 대원불교대학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붓다스쿨에는 최봉수, 장휘옥, 허경구, 김사업 교수, 일운 스님이 유익사상, 부파불교의 이해, 중국불교사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정규 커리큘럼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조계사도 홈페이지를 통해 수행법 강좌를 무료로 개설하고 있다. 조계사불교청년회 주최로 내년 3월 9일까지 '겨울나무에서 봄나무에로'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수행법 강좌를 녹화해 서비스한다. 또한 일요법회, 큰스님 법문 등의 동영상 강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교양대학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 외에도 삼보사이버불교대학, 전북불교대학, 인터넷 불교대학 등의 사이버 교양대학도 다양한 불교 강좌를 개설해 불자들에게 불교에 대한 감흥을 해소시켜주고 있다. 사이버영남불교대학 확장 우학 스님은 "가상대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부처님 전리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도구"라며 "불자들은 가상대학을 통해 불교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참다운 수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ki@buddhapia.com



결산

‘의욕’과 ‘현실’거리 좁혀야

정보사회에 대한 사찰의 적응도는 어느 정도일까? 지난 1년간 '우리절 사이버디지털 불사'를 연재하며 내린 결론은 '부분적 만족'이다.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상은 그에 미치지 못하거나 투자에 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도된 사찰들은 약 30여 개 정도로 대다수의 사찰에서는 주지스님을 비롯해 소임을 살고 있는 스님들과 사중의 사부대중이 높은 정보마인드를 갖고 있었다. 스님들의 정보마인드는 자연스럽게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이나 사찰 홈페이지 또는 중무 전산화 부분에 대한 투자로 이어졌고 사찰의 정보사회 적응도 그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찰에 전산담당 종무원을 배치하는 것도 공통된 특징이다. 특히 사찰에서 종교문화 향년회 등 열심히 실행활동을 한 청년 불자가 종무원으로 사찰 홈페이지나 중무관리 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찰도 많았다. 스님의 정보마인드와 정보사회에서 자란 젊은 불자의 만남은 수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사찰이 정보사회에서 지리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나의 절 친구 또는 나의 포근한 집과 같은 느낌의 새로운 이 미지 창출의 열매를 맺게 했다.

그러나 종무관리의 전산화는 아직까지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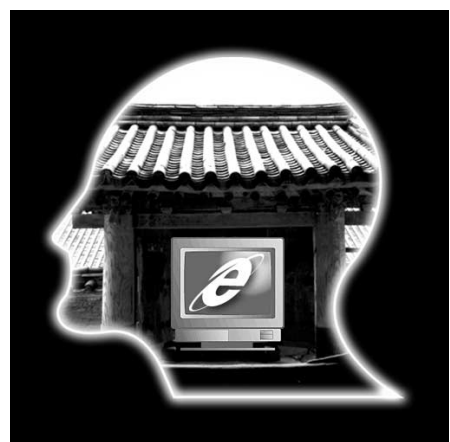
도카드에 의존하고 있는 사찰이 많았다. 물론 스님이 법회를 진행할 때 신도카드를 보고 추천하는 경우를 위해 신도카드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찰의 신도관리, 회계관리 등의 중무를 전산화 했을 때 사찰 중무의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지 못하는 것 같다. 특히 종무원의 연령이 비

교적 높은 편이어서 실제로 사찰의 중무가 모두 전산화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활용 빈도가 높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사찰 종무관리 전산화나 홈페이지 운영은 지속적 관리가 생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찰도 적지 않다. 실제로 몇 천만원을 투자해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를 몇 년째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찰도 일부 있어 스님들이나 종

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동안 투자한 모든 재원이나 노력들이 헛수고가 된다. 지속적 투자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중앙승가대학교 김용철 교수는 "사찰이 정보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불교의 미래는 밝지 않다"며 "우선 스님들의 정보마인드를 갖고 신도들을 교육해야 하고, 사찰 홈페이지나 종무관리도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소개된 30개 사찰 정보마인드 갖춰
투자에 비해 비효율적 운영이 문제
종무관리, 신도카드 의존 사례 많아

계시판 열보기

◎ 살아오면서 막연히 생각만 해오다가 근래에 도리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관광길에서 보아오던 사찰의 모습과 내가 다닐 나의 도리사는 마음 가짐부터 바뀌는 듯해요. 도무지 어설픈 것만 같습니다. 모든 분들 성불하시고요. 저처럼 우매한 초심자들이 흠여라도 실수가 있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고 많은 가르침 주시옵소서.
도들이 다음 도리사카페, 가입인사 게시판

◎ 바빠질수록 오히려 삶에 긴장을 하게 되는 일상과 나는 모호한 그리고 아주 애매한 긴장관계를 가집니다. 미운정도 정일까요? 그렇게 시큰둥하고 나를 스스로 지치게 만들었던 바쁜 일상이 다시 나의 몸과 마음에 긴장을 풀어 놓습니다. 정원학, 네이트연꽃나라, 자유게시판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포레스트상가뉴스레터

(http://www.fsnewsletter.net)



포레스트상가뉴스레터(이하 상가)는 세계적인 불교 뉴스레터 사이트로 전역 불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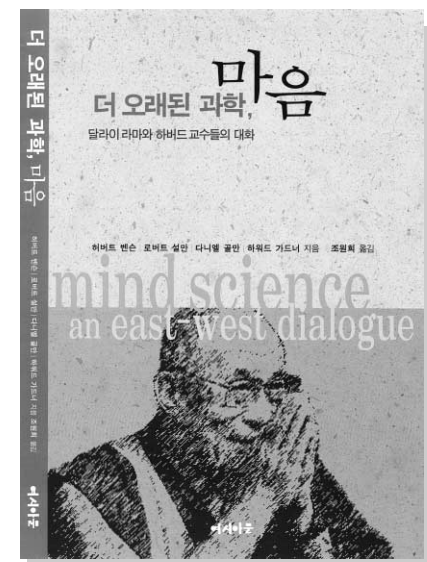
상가는 세계 지부 소개를 비롯해 불교이슈, 뉴스 기사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온라인 구독신청을 하면 다양한 불교이슈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해 준다.

또한 불교에 대한 학문 정보, 재가 불자들의 재교육 프로그램 등도 소개되어 있어 불자라면 한 번쯤 둘러보아야 할 홈페이지로 평가받고 있다.

여시이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8881(대)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명상은 몸과 마음 건강에 큰 도움... 미국인 천만명 '명상 붐'

- <타임>지 보도



허버트 벤슨 외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200면 / 9,000원

마음

더 오래된 과학,

달라이 라마와 하버드 석학들 '마음과학(Mind Science)'에 대해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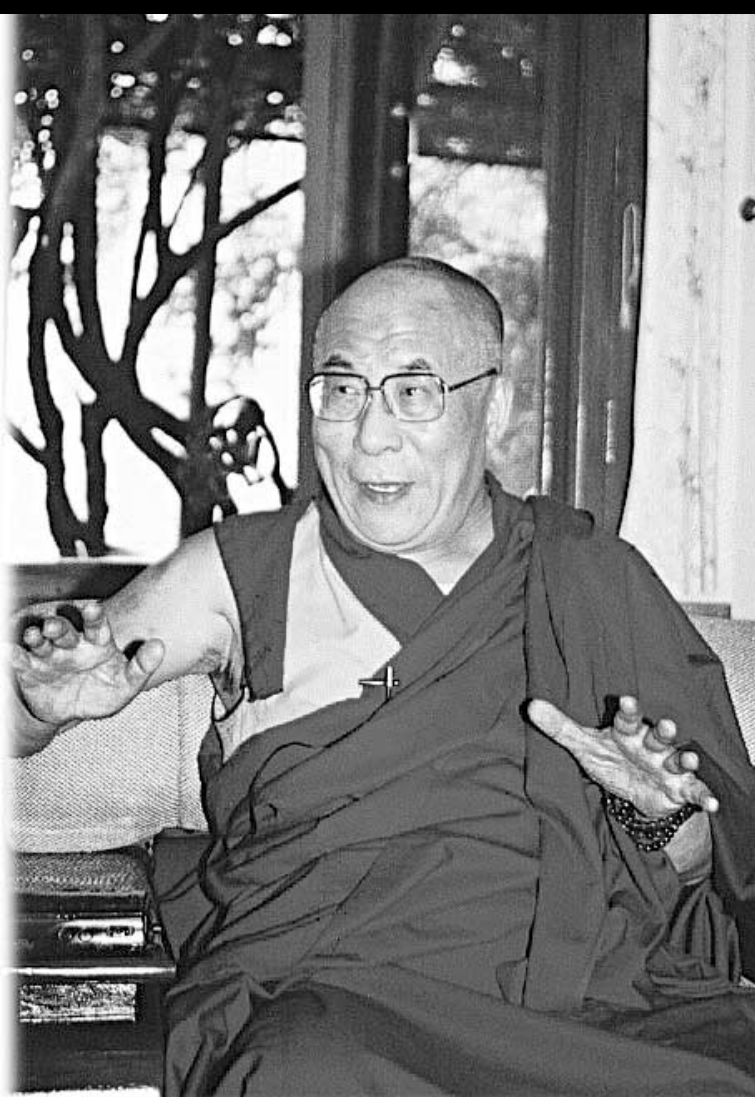
<타임>지 최근호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 행동의학과 허버트 벤슨 박사가 연구한 명상할 때의 뇌상태 결과를 소개하는 등, 명상이 심장병, 암 등의 만성적인 난치성 질병의 고통을 예방하거나 완화한다고 소개했다. 또 우울증, 주의력 결핍 등 심적 불균형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명상요법이 널리 활용

마음과 몸의 섬세한 관계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 불교 사상의 대가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서양과 동양의 접근법을 통합하여 마음의 본성, 인간성장 잠재력,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은 현대 과학과 불교 간의 역사적 대화의 시작을 기록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탐구한다.

된다는데 연구결과도 소개하고 있다. 하버드 의대를 대표하는 허버트 벤슨 박사 등 하버드 석학들이 달라이 라마를 초청, 마음과학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마음과 몸 연결 작용에 관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책이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이다.

달라이 라마

"마음은 정신적 사상이 상호 연관된 대단히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음은 몸의 생리학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역동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과정(process)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법보시는 02)737-0695로 연락 주십시오.

mind science